



발행인 이미영/편집인 김진성/발행일 2009월 10월 28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6-8(3층) / ☎ 063) 905-0218 (fax227-0650)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식

<http://blue21.or.kr>

제13호

2009년 10월



사람들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마침내 피어나는

정 경 애 (회원, 이일여고 교사)

두륜산 묵직한 입을 열어
오라
하기에 품 더듬어 오르며 마음 맞추는
맵싸한 아침

눈길 닿지 않는 이끼 그늘에
대싸리와 섞여 아무렇게 돌아난
한 뻘도 안 되는 차(茶)나무
보양개
병그는 가슴 감싼 채 숙여 섰네

온갖 꽃
저마다 매무새 가다듬고
다투어 기개 떨치던 시절엔
눈과 귀 닫은 양
안개며 구름 비 천둥 끝안고 뒤척인 겐지
서늘바람 첫 자락 물고서야
연두 망울로 삭여낸
여여정진(如如精進), 이 고요

정녕
닥쳐올 눈서리 아랑곳없이
마침내 터져
천지시방 스미어 어루만지고야말

【시상 (詩想)】

초겨울, 두륜산에 오르다가 초입에서 키작은 차나무와 마주쳤다. 파르라니 첫 꽃이 맺힌 걸 보고 재촉하던 발걸음을 돌려 그 곁에 쭈그러 앉았다. 왜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야 피어나는 걸까 애처로이 들여다보는데, 곧 터져 향기가 배어나올 듯만 하여, 지나가는 등반객들의 분주한 소란스러움과 나 자신마저 잠시 아스라한 것이었다.

목차

- 002 권두시 / 마침내 피어나는
- 003 인사말 / 이미영
지금은 지혜를 모으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때
- 이곳에서는
- 004 “교원평가제” 교육정책 토론회
전북도교육청에 교육복지 관련 정책 제안
통일문화교실 1박 2일간 열려
고른기회장학사업 성과 진단
초등회원가족 1박 2일 나들이 실시
2학기,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문열어
인천세계도시축전 체험학습 실시
아동미술모임, 국립현대미술관 기행 실시
- 008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동참
- 009 기획/특집 1 / 교원평가제 토론회 지상보고
교원평가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011 방학 중 집중 토론 연수

기획/특집 2 / 여름독서캠프

- 012 “꿈을 찾아 떠나는 2박 3일간의 책 여행”
- 014 2009 여름 청소년 독서캠프 성과분석
- 016 교육시론 / 신중 풀루, 수시, 대학 권력
- 018 문화다시보기 / 영화 ‘터크 애버래스팅’을 보고
- 018 교육서평 / 《공자 노자 석가》
- 019 활동속으로 / 특색 있는 학교 독서교실 들여다보니...
- 023 완산초등학교 독서교실을 돌아보며
- 024 장재성선생님의 통일이야기 / 자원외교와 우리의 가능성
- 025 조경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들꽃이야기 / 물매화 이야기
- 026 탐방인터뷰 / 학습 소모임 「아르케」를 찾아서
- 028 생태만화 / 꼬마 애벌레 말캉이
- 030 회원동정
- 031 「북녘 어린이 공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원서

지금은 지혜를 모으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때



이미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 요즘의 학교 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오는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은 그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인 고교의 입시 중심 교육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느낌입니다.

... 이렇듯 교육의 가치가 전도된 상태에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른기회 심포지움’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꾼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른기회장학재단은 기존의 장학재단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소외 계층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개인 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와 같은 취지는 청소년 교육 문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본원의 활동 방향과도 일치하여 우리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지난해부터 2년째 재단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토요일 휴무일만이 아니라, 연중 14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독서 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연인원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회원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각 사업마다 함께 해주신 동료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활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 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오는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은 그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인 고교의 입시 중심 교육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느낌입니다.

10월 일제고사 때까지는 예·체능 수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다며 초등교사의 한숨 섞인 얘기가 들립니다. 전주의 중3 학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한다 하니, 아이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교육의 가치가 전도된 상태에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원은 최근 열었던 교육평가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더한 애정으로 본원을 지켜봐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2009년 10월

“교원평가제” 교육정책 토론회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려



9월 22일 본원 세미나실에서는 “교원평가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단순한 반대와 수용을 넘어 교원평가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바람직한 교원평가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교사와 시민, 학부모등이 참여하여 교원평가제의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본원 최순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교원평가제 토론회는, 박상준 교수(전주교대)가 ‘교원평가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염경형 정책실장(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이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본원 최선호 정책기획실장이 교사와 시민의 입장에서 교원평가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였다. (관련기사 9면)

교원평가제 1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2, 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곳 전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원평가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에 교육복지 관련 정책 제안 교육복지전담팀 운영, 교육복지선도학교 지정 등 제안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8월 18일(화)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최규호 교육감에게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번 교육복지 정책 제안은 지난 5월 초·중학생 400명의 설문조사와 ‘교육정책 세미나’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지역 교육복지 정책에서 꼭 필요한 5개항으로 구성되었다.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부교육감 산하에 교육복지담당관을 두고 교육복지전담팀을 구성 운영 2)도시 지역 교육소외 계층 밀집지역 학교를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 3) 교육소외계층 학력신장 위한 “독서·문화 교육” 확대 4)도시지역 소외계층 밀집지역 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5) 도농간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전북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등이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교육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른기회 심포지움 열려 고른기회장학사업 성과 진단

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주최한 고른기회 심포지움이 ‘고른기회장학사업 성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1일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본원 이미영 이사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양병찬(공주대, 회원)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우리 단체는 지난해부터 2년째 고른기회 장학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사업에 전념해오고 있다.

통일문화교실 1박 2일간 열려 청소년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시간 마련

통일독서문화교실이 지난 8월8일~8월 9일, 1박 2일 동안 무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술내고등학교 2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김영춘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시원한 계곡을 낀 연수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초등회원가족 1박 2일 나들이 실시 칠연계곡에 폭 빠지다

지난 8월 1~2일,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시기, 우리 문화원 초등가족들의 나들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 겨울이면 초등 가족들의 단합 나들이를 실시해 왔다. 올 여름에는 무주 안성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실시되었고, 10여 가족 50여명의 초등가족이 참여하였다. 여름 피서지로는 단연 최고라 할 만한 무주 칠연계곡에 자리 잡은 천혜의 연수원. 맑고 깨끗하고 깊은 계곡 물속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과 멋진 풍경이 정말로 한번 보면 잊지 못할 장소이다. 우리 문화원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안성자연환경연수원의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던 것도 우리에게 큰 행운이 아닌가 싶다. 편리한 시설과 환상적인 자연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쉬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휴가지와도 같았다.

첫날 무주 여러 곳을 보려했지만 계곡에 찾아든 수많은 인파에 포기하고 연수원과 칠연폭포에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아이들과 축구와 족구를 하며 운동하고 응원하며 하나 되는 시간 속에 땀을 흘렸다. 흘린 땀을 시원한 계곡물이 순식간에 날려 보내는 그 기분은 더할 나위없는 피서가 아닐까? 모두가 웃고 땀 흘리고 시원함에 순간의 시간이 지나간다. 맛깔스러운 저녁식사와 간식과 함께 하는 저녁 이야기, 이어지는 뒷풀이와 빼놓을 수 없는 별자리 관찰 등이 시원한 밤공기 속에 이루어졌다. 시원하고 정겨운 시간들의 연속이랄까?

다음날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보며 칠연폭포에 오른다. 물론 어제 오후와 새벽처럼 다녀온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아 다시 또 오르는 사람도 있다. 하나 하나의 연못이 이루어져 일곱 개의 폭포를 만든 곳에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지르는 감탄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모두가 내년 여름에 다시 오자고 말하는 이번 초등가족 나들이. 더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초등가족만이 아니라 문화원 가족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죠.

2학기,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문열어 쉬는 토요일 오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지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가 뿌리고 바람이 제법 세차다. 하나 둘, 아이들이 문화원 교육실에 도착한다. 인사를 나누고 이름표를 목에 건 뒤 자리에 앉는다. 주교재인 ‘난 원래 공부 못해’를 다 읽지 못했는지 뒷부분을 펴고 읽는 아이도 있다. 강사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있는 뒤 노영운, 유성례 두 분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아이들 앞에 나선다.



1교시. 퀴즈로 풀어보는 책 이야기. 언제 준비했는지 TV 퀴즈쇼에서나 본 듯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의 낱말 맞추기 플래쉬 자료들이 화면에 등장해 아이들 눈을 사로잡는다. 일단 성공이다. 퀴즈를 풀며 책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았다.



2교시.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나의 적성과 진로 알아보기다.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노영운 선생님의 친절할 지도를 받아 참가자들은 난생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졌다.

잠깐의 쉬는 시간. 아이스크림 빵을 먹으며 잠시 쉬어간다. 여름방학 지나고 오랜만에 만나 조금이나마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편안한 시간이다.



3교시. 20년 뒤의 ‘나의 명함 만들기’ 시간.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탐색해 본 뒤 내가 갖고 싶은 미래의 명함을 예쁘게 만들어 보았다. 완성된 명함을 모아 예쁘게 사진 촬영 찰카! 오늘 수업 결과물들을 갈책(자료집)에 정리한 뒤 스티커를 상으로 받아 갈책에 붙인다. 열심히 스티커를 모은 친구에게 마지막 수료식 날 큰 상을 줄 예정이다. 하나라도 더 모으려는 모습이 참 예쁘다.

2시간 반이 금새 지나갔다. 곳은 날씨였지만 문화원 교육실은 또롱또롱한 눈망울의 책을 좋아하는 예쁜 아이들과 그 아이들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열의 넘치는 선생님들의 행복한 눈빛으로 가득했다.

서신초(홍인재 회원)에서 진행된 9월 토요독서문화교실. 『마사코의 질문』 ‘꽃잎으로 쓴 글자’를 읽고 한 독후활동.

이 밖에 완산초, 삼천남초, 아중초, 비봉초, 정읍도학초에서 2학기 독서교실이 진행 중이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체험학습 실시 세계의 꿈, 미래 환경의 꿈을 담다.

지난 8월 15일 남원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본 원이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다녀왔다.

첨단기술과 생태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 환경에 대한 모습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각국의 도시로서 표현한 인천세계도시축전 문화체험학습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 대한 정보와 문화, 과학문명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으며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꿈을 품게 하였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가족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동미술모임, 국립현대미술관 기행 실시 “그림 속에 사람들 이야기가 있네.”

초등 아동미술모임 「도화지」(회장 전지민, 정읍한솔초)에서는 7월 25일 쉬는 토요일에 정읍 고부초등학교 5학년 13명의 아이들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기호를 고려해 아름답고 친근한 느낌의 어린이 미술관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한 기간에는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라는 기획전시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전문 해설가의 도움을 받아 해설을 들으면서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어린이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면서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재료와 색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은 참여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는 관람한 미술작품에 대한 이야기꽃이 피었다. 김인규 학생(고부초 5년)은 「토요미스테리」라는 작품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다면, “무서우면서도 궁금해서 자꾸자꾸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만 살짝 들어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그림 속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공포영화를 볼 때가 생각났다”고 했다. 또 “처음에 미술관에 간다고 했을 때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고 또 가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며 흐뭇해 보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라는 화제의 전시와 함께 소장품을 한국미술의 시대별로 묶어 전시하고 있었다. 만화 전시는 아이들에게는 만화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어른들에게는 옛 시절 잠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소장품전에는 박수근, 이중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일행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더 깊이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미술관을 나섰다.

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많이 둘러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기행을 이끈 전지민 교사는 “아이들과 미술관을 관람한 이번 여행은 새로웠어요. 수많은 그림들을 몇 시간씩 바라보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림 하나하나를 보며 자기식대로 그림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미술교육은 이런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기행이 준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 동참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이 지나면서
민주주의 훼손과 민생파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중심으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군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열린전북, CBS전북방송,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공동주최한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가 3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이 지나면서 민주주의 훼손과 민생파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본원에서는 김운수 고문, 이미영 이사장, 정은숙 이사, 최순삼 원장, 정우식 부원장, 신성하 통일국장, 최선호 정책실장이 함께 참여하여 교사로서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좌표설정과 교육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차 토론회(8.14)에서는 최순삼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가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대응방향”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현 정부의 학교현장과 유리된 입시경쟁중심의 이벤트성 학교교육정책과 학교자율화 정책의 허구성을 밝히고,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 교육을 어떻게 부실화 시키는지를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자율과 경쟁이 입시성적으로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학교가 학원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을 오히려 억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유경쟁=입시경쟁으로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교사부터 버려야 하며, 정보지식 사회에서 성장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삶에 대하여 교사의 성찰이 깊이 있게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성찰과 결단은 깨어 있는 교사들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가능함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분들로부터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무책임성과 집단이기주의적인 경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본원은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방학 중 활동가 토론회(3차례)를 통하여 교원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원평가제 토론회 지상보고

9. 22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원평가제 토론회의 주발제문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원평가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비해야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교원평가제가 곧 시행될 시점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적격 교사의 퇴출 및 교장승진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교원평가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논의를 반영하여 2004년 교육부에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였고 2006년 10월 정부에서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대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교원평가제가 논의되어 오면서 일반 국민의 대다수와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일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간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의 부정확성과 불공정성, 평가결과의 악용 우려 등 원론적인 문제만을 제기하고 대안 없이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교과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자질 갖추는 노력 필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교원평가제가 제기된 이유는 교사의 수업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런 불신을 없애고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교과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사는 체크리스트 활용한 수업관찰, 자기 수업에 대한 관찰일기 쓰기, 자기 수업의 비디오 분석하기, 자기 수업에 대한 학생의 설문조사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업 계획부터 수업의 실제 과정을 스스로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 교원평가제의 입법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 필요

현재 교원평가 관련 초·중·고교육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 교사와 교육단체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평가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평가 대상의 명확화(교장, 교감, 교사), 교원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식(평가자의 비밀 보장의 방안), 교원평가의 비율 결정(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율 반영), 평가결과 활용방법(교사의 능력 개발에 활용) 등에 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 교원평가 대상의 명확화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으로 초·중·고교의 '교원'으로 규정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대통령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최근 교총이 정부의 2010년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원평가의 대상에서 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평가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 때 평가의 대상에서 교장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 취지에 맞게 교원평가의 대상은 교사, 교감, 교장을 모두 포함하고, 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의 평가를, 교감과 교장은 학교경영 능력의 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교원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식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교사가 동료교사 및 교감, 교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과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내용과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면 평가지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무기명 비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결과의 반영 비율

다면평가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교감과 교장의 평가 결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교원평가는 평가 주체의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왜곡될 수도 있다.

교원능력평가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가 반영 비율을 30% 이내로 최대한 줄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최대한 확대키는 방안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결과의 활용: 인사자료보다 교원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에 제출한 초·중·고교육법 개정안과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따르면, 2010년 3월에 교원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교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연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의 답임과 수업 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관련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에서 평가결과를 연수의 강제 부과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2006년 10월 정부의 개정안처럼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법 조항을 변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평가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평가결과를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

간 재교육(연수), 담임 및 수업에서의 배제, 교사의 면직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단지 교원의 자기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독립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교원평가의 결과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교원의 수업능력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으로 부터 독립되어 교원 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관리위원회에는 교장과 교감을 배제하고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각 2인 정도 포함하고, 나머지 3~5명은 외부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대비해야

교원평가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하고, 교원평가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교원평가를 위한 평가지'의 항목과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초, 중, 고교별로 학생의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또한 같은 초등과 중등학교일지라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등의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초, 중, 고교 학교 급별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교별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평가의 항목과 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평가는 다면평가로 실시되기 때문에, 평가의 주체별로 평가의 항목과 평가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주체와 평가 내용에 따라, 교원평가에는 학생에 의한 교사의 수업만족도 평가지, 학부모에 의한 학교 교육의 만족도 평가지,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 평가지, 교사 및 학부모에 의한 교감 및 교장의 학교경영 능력 평가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학 중 집중 토론 연수

열띤 토론 속에서 문화원의 진로 모색

우리 문화원은 여름방학 동안에 회원 집중 토론 연수를 하였다. 시국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교육 자치에 적절히 대응하며,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조직 진로를 점검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었다.

7월 23일, 8월 6일, 8월 20일 등 3회에 걸쳐 문화원 교육실에서, 관련 주제로 1~2명이 발제한 뒤, 보조 토론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한 연수에서는 고문, 이사, 집행부서장, 지역 활동가 등 15~30여명 정도씩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었다.

교육자치 선거에서 정책 공조, 정책 제안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교육감, 교육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치열하게 오갔고,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할 교육시민단체 구성 필요성과 교사·학생 중심 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시민,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업을 펼쳐가야 함도 역설되었다.

문화원의 위상과 활동 방향, 회원 참여 사업 개발, 활동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한 위원회 체제로의 개편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교사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학부모, 지역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해야 하며, 비판과 견제, 문제해결의 대변자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도 지적되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의 연대, 도교육청의 행·재정 감시, 건강한 교육권력 창출 등에 더욱 힘쓰자는 것이었다.

연수는 상당히 유익했다. 문화원의 현 주소와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을 살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육적 순수성, 논리력, 실천성, 책임성 등을 지닌 우리가 중요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교육에서 인적쇄신, 건강한 인사 시스템 구축, 내용 있는 정책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와의 제대로 된 소통을 이끌 책무도 우리에게 있음을 돌아보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꿈을 찾아 떠나는 2박 3일간의 책 여행”

★ 책을 좋아하지만 학원 가라 숙제하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요즘은 못 읽었는데 이 곳에 와서 4권이나 읽어서 너무 좋았고 반성하게 되었고 더불어 책의 소중함도 느껴서 책과 더 친해진 시간이었다.(유승아 / 서신초 6)

★ 독서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알았고 많은 선생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했다. 또 책을 보며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꿈이 왜 필요한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이한수 / 아중초 6)

★ 같이 가 보자는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됐는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 아직 못사귄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친근해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후회가 되는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첫 날로 돌아가고 싶다. 내 기억에 가장 남을 것 같은 체험을 고르라면 ‘숲 체험’과 ‘작가와와의 만남’ 같다. 먼 훗날에 정말 내 꿈의 날개를 다는 것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박가은 / 용흥초 6)

★ 제 9회 독서캠프는 다른 캠프나 야영 보다 재미있었다. 나는 원래 캠프에 가서 자면 아파서 저녁이면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캠프에서는 신기하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이 캠프는 다른 캠프보다 활동이 다양한 것 같다. 그 중에서 유은실 작가님과와의 만남이 제일~~~ 특별했다. 다른 캠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숲 체험 놀이도 기억에 남는다. 지리산 도깨비도 보았다. 그 도깨비는 우리 6모둠만 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올거다.(황수아 / 정읍도학초 4)



간식이 없는 캠프장의 특성을 이용해 올 해는 ‘띠기’를 만드는 체험으로 기금을 마련. 5만 7천원을 모아 복讎어린이 공우유 지원 사업에 후원.

책 속에 푸욱 적혀졌다 나온 2박 3일 이었다. 지리산으로 들어갈 때도 비가 내렸고 나오는 날 아침까지도 안개비가 내렸다. 산을 나와 속세로 돌아오는 순간, 찬란한 여름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다. 언제 비가 내렸느냐고 약을 올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님 덕분에일까? 이번 독서캠프는 2박 3일 내내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 활동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모두들 머리를 맞댔고 그 덕분에 아이들은 온통 책 속에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간들이 새삼 더 소중하게 기억된다.

계속 이어나갈 부분은 끊임없이 책을 접하게 만들면서도 지루할 새 없이 운영한 점들을 들 수 있다. 책읽기의 중요함과 캠프 주제인 자신의 꿈을 찾아보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다음 번엔 비 오는 날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두어야겠다.

내년이면 벌써 10회다. 우리는 제 10회 어린이 독서캠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마음을 지리산 자락에 남겨 두고 올라왔다.

첫날.

캠핑장에 도착해서 노래 배우기. ㉠
지도해 줄 모든 선생님과의 만남. ㉡

가장 인기 있었던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 강
연 내용이 참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했다
는 아이들의 평가. ㉢



영화 '코러스' 감상. 숨소리도 내지 않고
영화에 빨려든 시간. 마티유 선생님과 모
항주의 노래가 인상적 이었다.



둘째날

아침. 밥을 먹고 오전 활동 들어가기 전 틈새 시장을 공략.
'책 교환장터' 에서 책을 사고 파는 친구들. ㉣

독서 전문가 활동. 늘 온 몸을 내던지는 최상렬 선생님. 역할극을 맡아 아이들 마음
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 ㉤



아슬아슬 스릴 넘치는 숲체험. 용기를 내
도전하기도 하고 누구는 포기하기도 했
지만 도전한 친구들은 이보다 더 짜릿할
순 없었다!



㉦ 언제 해도 즐거운 골든벨! 두 시
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웃고 행
복하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고, 마
지막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가린 이정
옥, 정주량 두 선생님! 수고해 주신
선생님, 참가해 준 친구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내년 제 10회 어린이 독서캠프에서
다시 만나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 지역사회 책문화 축제 한마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

그림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여름 청소년 독서캠프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학생 70명, 교사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학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지난 열 번의 독서캠프가 매년 특색있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듯이, 독서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응하며 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009년 11회째 독서캠프는 그 동안 열 번의 독서캠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으로 캠프를 준비하였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독서캠프를 다녀간 선배들의 귀환이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독서캠프는 햇수로 7년째를 맞고 졸업생들은 이미 어엿한 대학생들로 성장하였다. 그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고 있다. 올해는 한양대 중어중문과 이현진, 전북대 영문과 김나연, 전고 1학년 조용화, 성심여고 1학년 이푸름 이렇게 네 명이 선배 자격 봉사자로 참여하여 독서캠프 품격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시도는 학부모 참여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휴가를 일부러 캠프기간에 맞춰 참여한 이유민 학생의 어머니 윤효진 님은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직접 지도교사로 참여까지 하였다. 윤효진 님은 ‘독서캠프에 직접 참여하여 캠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의미 있었고, 휴가와 맞바꾼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부모님과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는데 매우 호응이 좋았고, 소양중 김성희 학생은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간담회

내용면에서도 연극, 만화, 신문제작, UCC 제작 등 진지한 활동과정과 수준 높은 성과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서토론대회는 아이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의 저자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선배들의 봉사활동



선배들과 즐거운 시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비가 오는 관계로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으로 체험하는 자연체험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야외에서 별들과 함께 영화를 볼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올해 독서캠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시민단체, 교육단체, 후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지역사회 책문화 축제 한마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론대회



신문제작



작가와의 만남



신종 플루, 수시, 대학 권력

부원장 정우식

신종 플루보다 위험한 우리 교육 - 학생 자살 매년 1백 수십 명

광풍 같던 신종 플루 호들갑이 어느새 수그러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뿐 아니라, 교육당국과 학교의 신종 플루 대응을 생각하면 맥 빠진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도 매일 등교 때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그 체온계를 구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체온계는 동이 났다. 하라니까 마지못해 교실도 몇 차례 소독하였지만 그게 끝이었다. 소풍, 수학여행 등 각종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었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국민 몇 만 명이 죽게 될 거라는 협박성 보도가 난무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게 온갖 지시가 하달되고 조금만 이상해도 즉각 보고해야 했다.

그렇게 야단법석이던 것이 며칠을 못 갔다. 그마저도 일관성 없이 금세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교육 현실, 곧 아이들의 삶과 오버랩 되어서였다.

늘 주요 뉴스로 다뤄진 신종 플루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모두 15명이다.(10월 12일 현재)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아온 고위험군의 고령자이다. 청소년 자살은 사망자 수로만 건준다 해도 훨씬 큰 문제이지만 신종 플루처럼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학생 자살 현황'에 따르면 08년 연간 학생 자살자 수가 137명이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성적문제로 인한 자살만해도 08년도에 17명으로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여 경쟁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자살은 은폐되거나 사망 원인이 왜곡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언제 한 번 신종 플루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가? 그 많은 아이들이 주목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갔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등교 때마다 체온을 체크하던 그 열의와 관심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쏟았다면? 교사인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대학입시와 경쟁 교육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쩌다 한 번 '전염병처럼' 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먹고 있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대학과 관련이 있다. 대학이 교육과정의 왜곡을 비롯한 온갖 파행과 변칙, 생활 리듬이나 양식의 변화까지, 고등학교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마침내 평온한 삶 자체를 일그러뜨리고 만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시 전쟁, 혹은 폭풍, 뒤에 오는 공황과 폐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제 정신이 아닐 정도로 쫓기는 시기이다.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 수시모집(이하 수시)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9월 19일부터는 학교별로 논술 및 면접 교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능 막바지에 몰린 학생들이 대학별, 전형유형별로 대개 복수 지원을 하느라 수능 전에 일찌감치 커다란 입시 부담을 치렀다. 수시 때문에 2학기 개학 뒤부터 추석 직전까지 3주 동안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9월은 수시의 달이었다.

인문계고교 교사로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고, 추천서를 써 주면서도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양식만 해도 그랬다. 과연 그 도도한 대학들이 이 정도의 단순한 질문(그러나, 지원자들에게겐 결코 단순할 수 없는)에 답한 걸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일까?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다양한 지원자들의 삶을 평가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변별하여 점수를 매기고, 당락을 결정할까? 평가의 신뢰도는 믿을 만하기는 한 것일까?

학교에서 3년간 지켜본 아이의 삶으로 보아선, 반드시 뽑혀야 할 아이인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담아낼 방법도 없고, 대학이 그것을 정확히 짚어 가려낼 도구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설령 그것을 담아냈다 해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줄 대학은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것은 항상 현실로 다가왔었다. 까놓고 더 의심하자면, 과연 제대로 진지하게(수능을 달포 앞둔

수험생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소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작성한 그 심정과 노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읽어 주거나 할까? 쉽게 수궁할 수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원서를 쓰면서도, 쓰고 나서도 내내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후유증으로 리듬이 깨진 아이도 적지 않았다. 원서를 쓰지 않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다른 흔들림이나 아픔이 있었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함께 휩싸여야 했고, 내세울만한 대학에 원서조차 쓰지 못한다는 자괴감 같은 것을 말 못하고 견뎌야 했다.

대학은 제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로 골라 뽑아가는 재미가 쏠쏠할지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늘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하면 할 말을 잃게 될지 몰라도, 아이들과 함께 해온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도, 수시도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능, 내신, 논술과 면접이라는 3중, 4중의 고통을 감당하느라 야간자율학습까지 강행하며 보통 하루 15시간씩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고교 현실에서(이러한 현실조차도 오로지 대학입시 때문이다.) 수시가 요구하는 특기자나 입학사정관제의 명목에 맞는 인재가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을까? 대학의 입학 서류 구색이나 맞춰주기 위해, 수능 부담을 눈앞에 둔 전국의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몸 상하고, 가슴앓이 해야 하는가?

대학, 수시모집으로 막대한 전형료까지 챙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전형료는 너무 비쌌다. 원서 접수에 수십만 원씩 쓰는 경우도 많았다. 전형료가 적은 게 5만 원부터 보통 7~8만 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 자료 준비 비용에다 교통비, 더러는 숙박 부담까지 합치면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곳에 복수 지원한 학생의 부담은 말 할 것도 없다. 돈 없으면 응시할 엄두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예상대로 대학들은 막대한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올해 수시 지원자는 총 67만 7,829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8,990명(6.6%)이 늘었다. 지원자 수로 전형료 수입을 추정한 결과, 고려대 47억, 성균관대 46억, 중앙대 44억, 한양대 39억, 연세대가 28억 원이었다. 1단계 탈락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2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06년 866억, 07년 992억, 08년 1,018억 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입학사정관제, 너마저?

입학사정관 제도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인의 적성과 가정환경은 물론 잠재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입학사정관제도의 근본 취지야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대학은 취지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했다. 내신 등급이 높거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권력을 쥔 대학이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는 제도를 제멋대로 내신 상위권자나 특목고 학생을 뽑는 편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대로 검정고시 출신이나 대안학교 학생을 선발한 곳은 한 곳뿐이었다고 한다.

원서 접수 시부터 어느 대학은 부모의 직업은 물론이고 직위까지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인터넷 접수 시 그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적성과 잠재능력까지 파악해 학생을 선발하려 한다면 부모의 직업과 직위는 왜 필요한가? 그 질문을 접한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스스로 절망했고, 대학의 저의를 의심했다.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사적 이익에만 급급하고, 계층 양극화를 부추겨서야 쓰겠는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입시 장사라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태가 문제이며 횡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는 대학 이기주의라 할 수밖에 없다. 믿고 맡길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닌데 책무는 다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율권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은 자정 능력을 보여 달라. 대학이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에 젖어 자정력을 잃었다면,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가 나서서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 사족-대학권력이라는 다소 부담스런 표현을 썼지만, 지방 대학(이제 '지역 대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은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거대 권력인 수도권 대형 대학(명문대라 부를 이유나 의사가 전혀 없음)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언제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영원한 삶의 비밀을 찾아서 영화 '터크 에버래스팅' 을 보고

신은철(장계중 교사)



선생님,

오늘 출근길에 장대비가 어찌나 세차게 내리던지요. 마치 차가 물 속을 달리는 듯 하였습니다. 홍수신화 속 비 오는 날이 오늘 같지 않았을까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을 뚫고 오면서 느닷없이 고대영웅 '길가메시'가 생각났습니다.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영생의 비밀을 찾아 먼 여행길을 떠났던 길가메시.

저도 작년 중국에서 쓰러져 아픈 이후로는 삶과 죽음, 영생과 구원 등과 같은 삶의 본질을 다루는 작품들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길가메시 서사시'를 다시 읽고 있고요. '버킷 리스트', '잠수종과 나비', '밀양' 등의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가려면 반드시 죽음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메토 모리(memento mori · 죽음을 기억하라)'란 말도 있잖아요. 물론 직접 경험해보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ㅎㅎ 책과 영화를 통해 간접 경험 해보자는 거지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렬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터크 에버래스팅(Tuck Everlasting)'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나탈리 배비트라는 미국 작가의 소설 '트리캡의 샘물 (원제:Tuck Everlasting)'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위니라는 소녀가 집근처의 숲에서 제시라는 소년을 만나면서 영생의 삶을 얻은 제시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한 소녀의 성장영화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생각만큼 행복할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얼핏 생각해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그리 무겁지 않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까지 부담 없이 즐겨 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토론해 볼 만한 영화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숲과 샘물이라는 신화적 상징성도 함께 생각해 볼만한 작품이지요.

〈숲과 샘물의 상징〉

숲: 자연과 삶,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공간. 숲은 마음의 영역이며 여성원리임. 시련과 입문식이 벌어지는 곳. 미지의 위험과 암흑이 지배하는 곳. 숲은 혼이 미지의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 죽음의 영역. 자연의 신비,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세계를 나타냄.

샘=물: 생명력과 거울의 이미지. 베다의 경우 물은 가장 원초적인 모성을 상징, 이는 우주의 발생 초기에 우주가 빛이 없는 바다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존재로 간주되며, 그것은 비, 수액, 젖, 피의 형태로 자연을 순환함. 그런 점에서 물은 무한과 불멸을 상징.

물에 잠기는 행위는 형태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로의 회귀를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전멸과 죽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과 소생을 의미함.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인간의 영원한 삶과 구원,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에 대해 두서없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개 속 미로를 헤매고 있지만요. 선생님도 이 영화를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본다면 제가 좀더 일찍 미로 속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 주시겠지요?

선생님,

선생님은 자신의 내면과 우리 문명을 성찰해 보고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만의 숲과 샘물을 갖고 계신지요?

저요? 저의 숲과 샘물은 바로 책과 영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인 걸요. ^^*

그래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을빛이 눈부신 마을 근처의 숲에 산책가요. 혹시 영생의 샘물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시간 내주시겠죠?

“죽음이 있는 삶을 두려워 마라. 미완성인 삶을 두려워하라”

- 터크 애버래스팅' 중에서

2009년 어느 날 신은철 드림

[같이 보면 좋아요-영화와 책]

〈영화〉

1.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미국, 2008, 데이빗 핀치 감독) : 시간이 흐를 수록 젊어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1922년산 단편소설을, [세븐], [파이트 클럽], [에이리언 3]의 명감독 데이비드 핀치가 메가폰을 잡고 대형스크린으로 옮겨온 감동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2. 잠수종과 나비(프랑스 · 미국, 2007, 줄리앙 슈나벨 감독) : 감금 증후군(locked-in syndrome)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한쪽 눈꺼풀을 깜빡여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한 남자의 이야기.
3.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미국, 2007, 롭 라이너 감독) : 죽음을 앞둔 두 노인이 병원을 탈출하여 여행길에 나서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유쾌한 유머와 함께 그려낸 영화.
4. 씨 인사이드(스페인, 2004,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 26년 전,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자가 된 남자, 그리고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그의 힘겨운 선택. 과연 그 누가 그의 선택을 찬성도, 비난도 쉽게 할 수 있을까?
5. 위트(영국, 2001, 마이크 니콜스 감독) : 절망적인 병을 진단받은 여인이 그로 인해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 위트의 진정한 의미, 삶과 죽음 사이의 미세한 선을 발견하고 깨닫는 다는 영화.

〈책〉

1. 트리갯의 샘물, 나타리 배비트 지음, 대교출판 : 시간과 죽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동화 소설.
2. 길가메시 서사시, 샌더스 지음, 범우사 :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영웅 길가메시 이야기.
3. 모리의 마지막 수업, 모리 슈윙츠 지음, 생각의 나무 :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에 젖어 있는 이웃들에게 들려주는 모리 교수의 마지막 이야기.
4. 사자왕 형제의 모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창비 :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 모험소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형, 그런 형의 뒤를 따라 사후의 또 다른 세계로 떠나는 동생, 매력적인 두 주인공 공이 등장하는 작품.
5. 인생수업, 데이비드 케슬러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레 :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배움은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 배움을 얻기 위해 꼭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배움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두려움, 자기 비난, 화,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입니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함께 생각해 보아요]

- 위니는 왜 가출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은 집을 나가고 싶었던 적(언제, 왜)은 없나요?
- 제시의 아빠가 호수에서 위니에게 들려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위니는 사랑하는 제시의 곁에 남지 않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원래의 삶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터크 가족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 우리 삶에서 '죽음' 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작품(영화, 소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 이 영화에서 색의 상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위니와 제시의 흰 옷, 제시 엄마의 초록색 옷, 추격자의 노란 윗옷
- 영화에 등장하는 숲과 샘물, 수레바퀴'의 상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공자 노자 석가》 모로하시 데쓰지(著), 심우성(譯)

서영호(전북중 교사)

1. 三聖會談



이 책은 그 규모와 정확성에서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 사람들을 당황케 한 《大漢和辭典》의 편저(編著)로 유명한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 교수가 공자와 석가, 노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三教圖’라는 그림에서 착상을 얻어 백살에 한 살 모자라는 白壽에 썼다.

저자는 유교의 《논어》, 도교의 《도덕경》, 불교의 《반야심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양사상의 정수(精髓)인 유교, 도교, 불교의 핵심사상을 세 성인의 회담(三聖會談)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어 개설(概說)하고 있다.

2. 庖丁解牛

탐색전도 없이 노자가 곧장 공자를 향해 스트레이트를 날린다. “유교의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

고 칼날을 세운다. 계속해서 그는 말한다. 無를 수레바퀴의 바퀴통 한가운데에 비유하며 “有가 인생에 이익을 주는 것은 無가 有에 앞서서 활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無가 없다면 모든 有의 활동은 나올 수 없습니다.” 수레(有)가 굴러가기 위해선 굴대가 들어갈 구멍(無)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자도 지지 않는다. “나의 天은 實有의 존재이지만, 노자님의 無는 유무를 초월한 허무의 무”라고 응수한다.

둘의 싸움은 학문관에서도 이어진다. 공자는《논어》의 첫 페이지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며 배움의 열정을 강조하는데 비해, 노자는 차갑게 웃으며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라고 일축해 버린다.

공자는 석존에게도 한방 먹는다. 제자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하며 삶의 애정을 강조하는 공자에게 석가는 “실상은 모두 쏘이며, 有의 세계에 속한 삼라만상은 모두 두 가짜다. 제행무상이니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일갈한다. 펄펄 끓는 물에 찬물을 확 끼얹는다. 전반적으로 노자와 석가가 공자를 협공하고 공자는 그 틈바구니에서 저항해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이다.

노회한 푸주간 주인(庖丁)의 칼날 아래 동양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세 기둥인 天, 無, 空이라는 거대한 소는 붉은 살결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빼만 고스란히 드러낸다. 유불도의 핵심사상이 간결하게 정리된다.

3. 吹毛覓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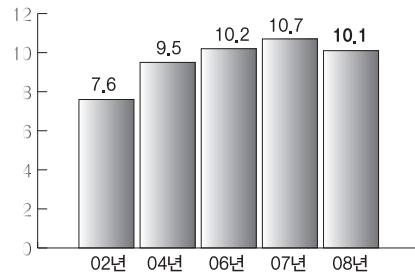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기 마련, 털을 붙어가며 여기 저기 헤집으며 흠을 찾아 본다. 먼저, 개론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경은 잘 묘사되었으나 근경이 너무 소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출발자체가 회담의 형식이긴 하지만 논쟁의 치열함이 부족하다. 생사관에 대해 공자와 석가의 논쟁이 뜨거워질 무렵, 사회자는 “이것 저것 따지면 걸리는 게 많으니 이 정도로 하자.”며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 (136쪽) 학문관에 대해 노자와 공자가 짚을 날리다 막 난타전을 시작하려는데 “배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두자”며 중단을 시켜버린다. (214쪽) 서운하다.

또한 노자와 석가의 대화가 너무 짧다. 같으면서도 다른 無와 空에 대해서 庖丁의 왜도난마 현란한 칼 솜씨를 기대한 독자들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한 시대에 들어온 불교의 ‘空’이 도교의 ‘無’와 때로는 같게 때로는 다르게 걸어온 사상적 이력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고 읽었는데, 아쉽다. 서운함과 아쉬움을 참을 수 없는 독자라면, 달 밝은 가을 밤, 황광우의 《철학콘서트》에 취해보시길.

특색 있는 학교 독서교실 들여다보니...

2008 국민독서실태조사(교과부) 결과 우리 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특히 중학생들의 독서율은 10.1%로 2007년에 비해 0.6%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학력위주의 학교 현장 모습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 중학생 연도별 독서율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위한 활동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 발짝 앞서는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주관하고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원하여 펼치고 있는 학교독서교실이 학교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어 독서교육의 좋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소양중 독서교실

소양중학교(교장 김능배)는 토요일 오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 1회씩 미리 나눠 준 한 권의 책을 읽고, 피자과 통닭을 먹으면서 책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영화강사, 기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을 초빙하여 특강을 하는 등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교실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문사서교사가 만들어 가는 완주중 독서교실

완주중학교(교장 이종순)는 전문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이다. 사서교사 정은경은 매월 1회씩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여름 방학 때는 1박 2일 캠프 형태의 독서활동을 전개하여 사서교사의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이중 독서교실



구이중학교(교장 유명옥)는 방과후 활동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1회씩 수요일 오후에 10여 명의 학생이 책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과후 활동으로 독서교실이 운영되는 모델이 되고 있다. ❶❷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곤지중 독서교실



곤지중학교(교장 한두현)는 열악한 학교 교육 여건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독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에는 10여 명의 교사들이 직접 지도교사로 참여하는 1박 2일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독서활동으로 학교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❸

국어교사와 사서보조교사의 협력을 통한 신일중 독서교실



신일중학교(교장 이광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서보조교사가 배치 되었다. 또한 이곳은 예전부터 국어교사들이 독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학교이다. 올해는 이들이 협력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국어교사와 사서보조교사의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❹

교육과정에 충실한 부송중 독서교실



부송중학교(교장 김운정)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월1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 교육과정 국어과 영역의 독서분야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❺

독서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청소년 교육의 희망이다. 눈 앞의 실리를 위해 미래의 가치를 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산초등학교 독서교실을 돌아보며

신성하(완산초 교사)

2009년 우리학교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서 독서교실만큼 많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참여하는 행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2008년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읽고살고(초등책읽기교육연구회)가 전주문화예술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독서교실을 완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하면서 우리학교에 놀토 독서교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문화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완산초의 어린이들은 학교단위나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며 상당수 학생들이 주말에 오고 갈 곳이 없어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다. 결국 전주문화예술지원센터(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1학기 토요 독서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2학기 때는 전주시 교육청의 1교 1방과후학교 공모사업을 통해서 2학기 독서교실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 해도 독서교실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역량(지도교사 준비정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다행히 본교 6명의 젊은 교사들이 독서교실 지도교사 역할을 희망해주었다. 1학기 때는 예산(전주시)과 지도교사(초등책읽기교육연구회)를 모두 외부에서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2학기 때는 명실상부하게 예산지원(교육청)과 지도교사(본교 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독서교실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08년 독서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저학년, 고학년 20명씩 두 반을 운영하려고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신청자들이 전교생 220명의 아이들 중 90명이 참가희망을 했다. 그래서 참가희망 학생들을 학기별로 나누어 독서교실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저학년 반은 대상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 수준차를 고려해서 1학년 아이들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지전가) 임은하 선생님께서 책 읽어주기와 다양한 독후체험활동을 통해서 1학년 아이들도 독서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2~3학년부는 보육교실에서 사서교사가 맡아서 독서교실을 진행했다.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또한 독서 학습지와 조작 활동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독서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고학년 반(4~6학년)은 20명 넘게 참가 했는데 두 명의 담임교사 지도로 사전에 교재를 돌려 읽고 독서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년 학급에서 돌려 읽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서교실의 성패는 평소 담임교사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미리 교재를 읽고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책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기 위해 통기타를 잘 연주하시는 학부모의 도움으로 고학년반은 9시 시작할 때, 2~3학년 반은 간식 먹은 후에 노래 부르기를 해오고 있다. 고학년보다 저학년 반 친구들이 매우 재미있게 노래를 따라 부른다. 독서교실을 통해서 특히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감지되며 참여 아이들 중에는 자신감이 생겨 예년에 비해 얼굴표정도 더 밝아지고 환해졌다. 독서교실은 분명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마음속에 행복을 심어주는 배움터이다.



자원외교와 우리의 가능성

장재성(익산남중 교사)

마그네사이트를 찾았더니 “탄산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탄산염 광물. 삼방 정계에 속하며, 잿빛을 띤 백색·노란색 또는 갈색이고 내화 벽돌·시멘트·산화마그네슘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라고 되어 있다.

북이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보유국이란 글을 읽고 궁금했다. 뭐하는 물건이고 얼마나 묻혀 있다는 건지. 더구나 중국 단둥과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보유량을 합치면 지구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양이라니. 우리는 전혀 나지 않은 광물이다. 특히 중국은 쟁도가 오래되어 개발 가능성이 낮은 반면 북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채광 가능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우리에게겐 가능성 아닌가?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속한다. 연간 약 100억 달러의 금속 광물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아연은 연간 140만 톤에 달하고 있고,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25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에는 연, 아연,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보크사이트, 우라늄 등 첨단 공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매장량의 80%, 마그네사이트는 전세계 매장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단천 지역에는 검덕광산, 대흥광산, 통산광산 등이 있는데 검덕은 세계적인 아연광이고 대흥, 통산 광산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마그네사이트광이란 것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채굴 가능한 북의 지하자원은 3700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북의 석유 매장량이 50억 배럴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05년 영국 아미넥스 사가 북과 체결한 유전개발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남포 앞 서한만 일대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정주영 씨 등은 더 많은 매장량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는 사이 중국은 북에 있는 지하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접근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북중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북과 중국의 지하자원에 계약이 대개 장기 채굴권이고 이것이 매우 상업적 성격이 강해서 통일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그네사이트를 다시 재수입해서 사용하는 편이다. 그리고 북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중국 기업들은 북중관계의 정치적 고려만으로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북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상 앞으로 우월적 지위가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볼적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을 고려한 선투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과거 소련 시절의 외교, 정치, 군사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라진-하산을 잇는 철로와 화물터미널 그리고 대북 채무 탕감설 등은 러시아가 북과 적극적인 관계를 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은 공장 설비와 광산 설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낙후하다고 전해진다. 최근 들어 광물을 그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방식에서 가공하여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비교적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퍼주기라는 논리만을 내세워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한다.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미 관계가 점차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형식이 6자회담이든 3자 혹은 7자 회담이 되든 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 가운데 오로지 우리만 문을 걸어 잠근 채 서 있는 형세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급하다.

북의 지하자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지하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북투자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통행, 통관, 통신도 어렵고 정치적 영향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으로 대표되는 리스크가 해소되면 북의 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것이 우리에게겐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그랜드바겐도 좋고, 일팔타결도 좋고, 행동 대 행동도 좋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듯 매혹적인 아름다움 물매화 이야기

조 경 희 (전주인봉초 교사)

10월이건만 아직은 한낮의 햇살이 제법 따갑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가 내 곁에 가을이 지금 머물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어 가을을 좋아하는 나는 마냥 아쉬기만 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물론 구절초, 숙부쟁이, 감국, 산국. 쑥방망이, 해국 등 단연 국화와 식물이지만 가을 야생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꽃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 없이 물매화를 으뜸으로 고르겠습니다. 수년전



어느 가을날, 늘 사진으로만 보고 그리워했던 물매화와 처음으로 설레이는 눈맞춤을 한 곳은 해발 1600미터이상의 고산에서였습니다. 그 때 내가 처음 만난 물매화는 한낮의 떠약벌아래 가너린 초록 줄기를 푸른 가을하늘을 향해 곧게 세운 채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피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이런 곳에 물매화가 피어있을 줄이야.....하지만 고산이야말로 안개와 구름, 이슬과 잦은 비로인해 늘 습기가 많아 물매화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동행인의 말을 듣고는 비로소 이해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고산 정상에서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계곡에서, 가을억새 우거진 산자락에서 그렇게 그렇게 물매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매화는 꽃의 모습이 이른 봄의 고고한 매화를 닮았고 습기를 좋아한다 해서 물매화, 또는 풀매화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범의귀과의 여러해살이 풀꽃인 물매화는 길이가 10~40cm의 꽃줄기에 한 개의 꽃과 심장형으로 생긴 잎을 달고 있습니다. 또 꽃잎 5장과 암술, 5개의 수술과 꽃받침 5장, 5개의 헛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헛수술은 12~22갈래까지 갈라져있는데 끝부분은 황녹색을 띤 물방울모양의 가짜꿀샘입니다. 이 꿀샘이 암술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왕관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이슬처럼 보이는 가짜꿀샘이 바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함이라니 참으로 자연의 세계는 신비하지요. 매크로렌즈세상에서 바라다 본 물매화의 모습은 참으로 청초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누구나 물매화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우주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속의 행성하나....물매화가 하얗게 군락으로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주 안에서 작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소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듯한 그런 매혹적인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 물매화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매화는 순백의 꽃잎으로 인해 더욱 더 단아하고 청순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동시에 내보이는 그런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또 꽃이 지고 난 후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오직 한꽃대위에 한송이 꽃만을 피워낸 후에 등글고 빛나는 열매를 맺은 마지막 모습조차도 참으로 단정해 보이지요. 물매화 마냥 우리들도 그렇게 정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매화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매화와 애기물매화입니다. 아직 애기물매화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애기물매화라 하니 물매화보다도 아주 작으가 봅니다. 물매화는 전국에서 자라나나 애기물매화는 제주도 한라산 산정상 부근의 습지에서 자란다니 언젠가 애기물매화와도 조우할 그날이 올까 하고 내심 기대해 봅니다.

학습 소모임 「아르케」를 찾아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 몇 개의 소모임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회원이 교사이므로 교사중심 소모임이다. 10년 가까이 중등 독서교실과 독서캠프, 단위학교독서교실 등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독서교육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책만세」, 초등 독서교실, 독서캠프를 주도하고 책 돌려 읽기를 일상화하고 있는 「읽고 살고」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초등 중심 아동미술을 공부하는 모임과 야생화를 연구하는 모임도 있다.

특히 학습 모임 「아르케」는 올해 4월부터 독서와 토론 중심으로 3주에 1회씩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우리 문화원 학습모임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후 계획을 모임 구성원들에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질문 : 먼저 학습소모임 「아르케」를 결성하게 된 동기나 배경,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선호 (완주중, 국어) : 작년 겨울방학부터 최순삼 선생님과 몇 차례 학습 소모임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습니다. 우선 저부터 바쁜 일상과 조직 활동 등 여러 가지 일로 소진만 되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논의력을 기르고 관점을 세워가는 학습소모임이 필요했습니다.

손춘임 (전주여고, 사회) : 3월초에 최순삼 선생님으로부터 모임 참여 연락이 왔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명확한 지식을 전달함에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입장을 갖고 아이들을 만나가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입시중심교육의 학교생활에 윤기를 주고 싶기도 했구요.

서영호 (전북중, 도덕) :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 교직에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대로 편입을 하고, 석사과정을 밟고, 직장생활을 하고, 돌고 돌아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고향이 전남 바닷가이고 전주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인연이 있어서 동산촌에 있는 전북중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에 도덕·윤리와 직무연수를 최순삼 선생님과 함께 받으면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과 사회의 바른 변화에 늘 상 조금만 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고, 생각과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의 학습소모임 참여는 저에게 새로운 일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최순삼 (북홍중, 도덕) : 20년 이상 교육운동을 하면서, 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역할을 하면서 자주 확인되는 지점이 ‘조직 활동 역량도 조직운영주체들의 지적역량 수준만큼 만 달라진다’ 것입니

다. 일상적인 '독서와 토론,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한 정리' 의 과정이 생략된 조직 활동은 활동가도 조직도 반드시 퇴행적으로 변해갑니다.

최선호 모임은 3주에 1번씩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9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읽고 토론한 책은 <철학콘서트>(황광우 지음), <종의기원>(윤소영 옮김), <후불제민주주의>(유시민 지음), <유토피언 드림>(제러미 리프킨, 이원기 옮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 지음)입니다. <철학콘서트>와 <유토피언 드림>은 두 세 차례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럼 지금까지 활동과정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불제민주주의>를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에 걸 맞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전근대성의 극복만이 대한민국 헌법을 헌법답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현실이 확인되었고요.

손춘임 교재선정과 발제자를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20분 내외로 발제를 듣고 쟁점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쟁점이 토론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도 많았고 어떤 부분은 참가자 모두가 입장이 같기도 했지만 입장이 다른 쟁점도 종종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를 공부할 때 한국사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누가 그 주체이어야 하는가? 등

서영호 토론이 길어질 때에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한 모임이 저녁 10시 반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토론 후 맥주 한잔 하면서 끝임 없이 이어진 담론의 과정은 전주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제게는 사는데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원에서 공부를 좀 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 <철학콘서트>에서 이항부분을 다룰 때 저는 이항의 학문적 부분만을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조선의 역사와 유교의 흐름 속에서 이항을 보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최순삼 <종의기원>을 읽고 토론할 때에 모두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공부에 익숙하여 '자연선택' '자용선택' '돌연변이' '개체변이'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을 실감했습니다.

질문 : 네 명이 하는 학습모임이므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순삼 한 생명이 살아가는데 신진대사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신진대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생명유지

에 또 다른 한편, 정신에 대한 신진대사는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서와 토론, 그리고 성찰이야말로 온전한 생명유지의 핵심요소입니다.

지난 9회째 모임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좀 더 체계적 학습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10회 모임에서는 중장기적인 커리큘럼을 짜보기로 했습니다.

아르케(arche)의 어원이 <시작>, <시초>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며, 학술적으로 <원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 기본토대가 되는 원리를 찾아가는 모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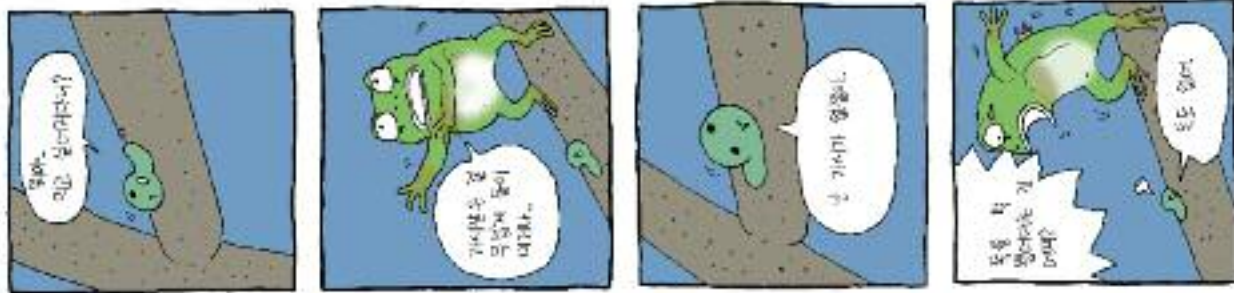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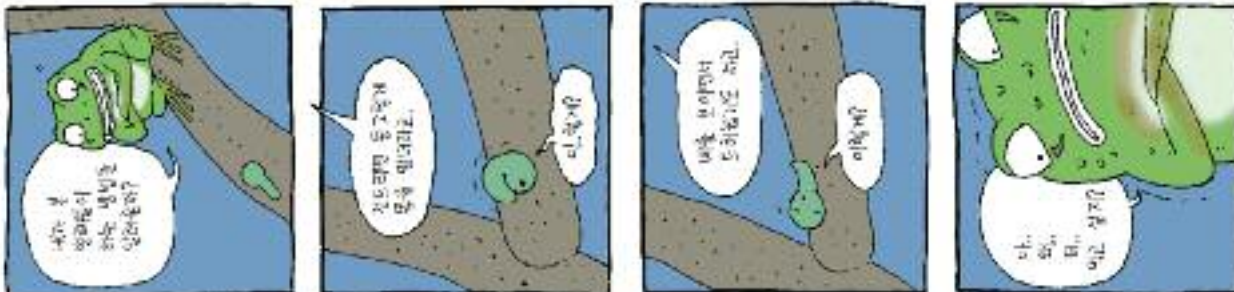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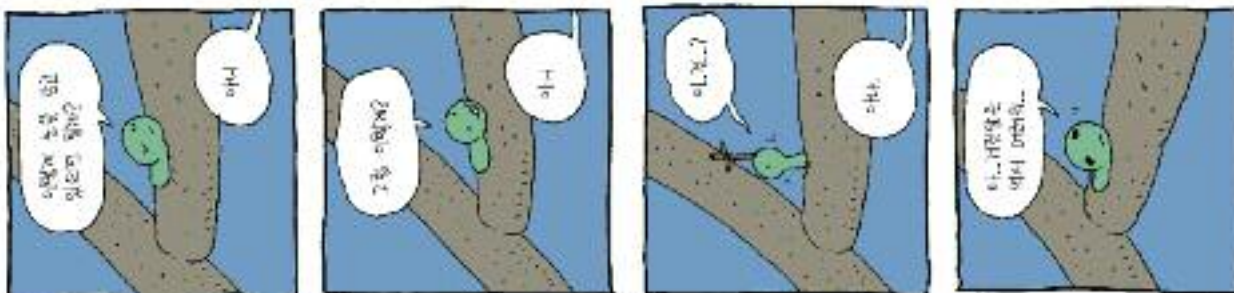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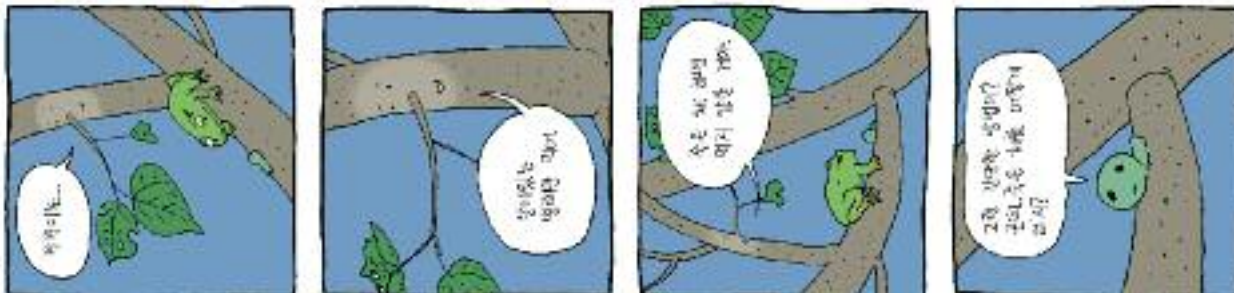
작가 소개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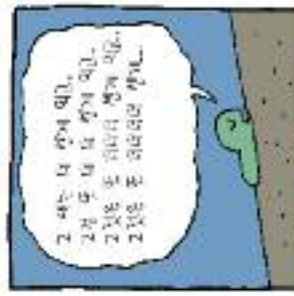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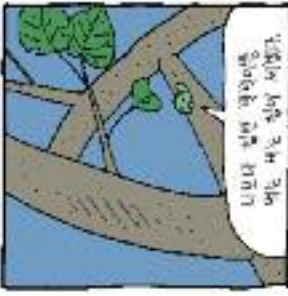
작가 소개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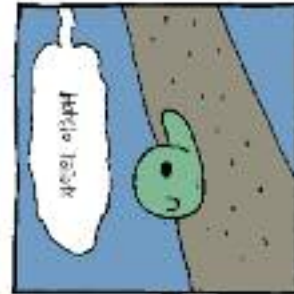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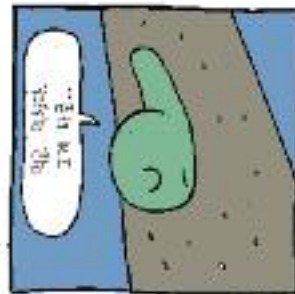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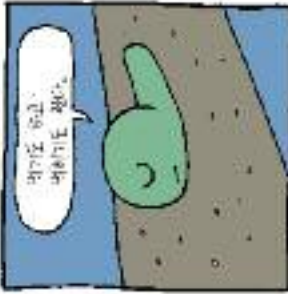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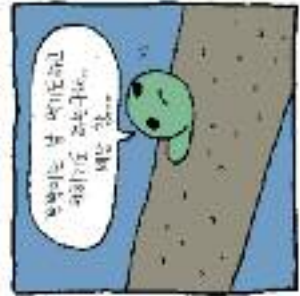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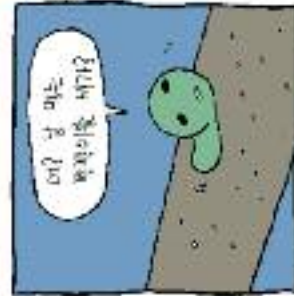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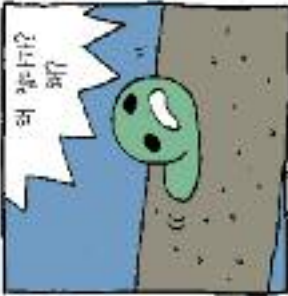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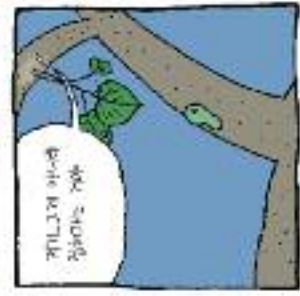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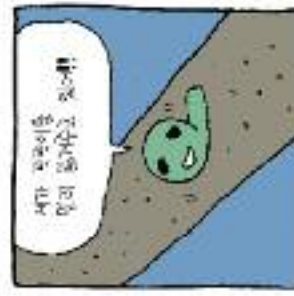
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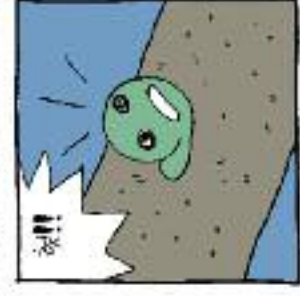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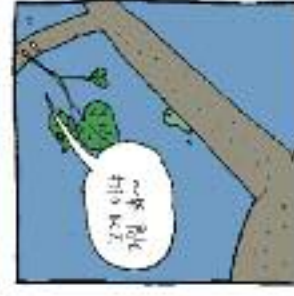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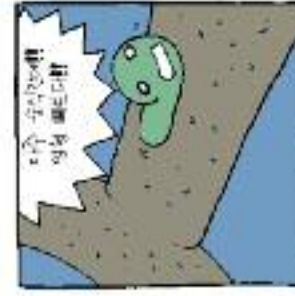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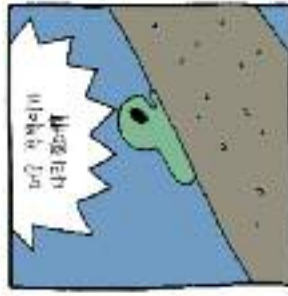
021/2



025/2



029/2



033/2



당혹한 말까지의 다음 이야기 끝 기대해 주세요...

회원동정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신입회원(가입일순)

최영실(전주인봉초)
김종영(남원중앙초)
안수미(임실오수중)
장명환(전주서곡중)
신희섭(전주신희고)
김용곤(전북사대부고)
함현구(이리여고)
백하나(전주공고)
송인영(전주공고)
전민경(전주공고)
정문옥(전주공고)
유혜원(학부모)

인사동정

노영윤 : 전주서곡초 → 김제초처초
윤장근 : 익산다송초 → 김제용동초
김현봉 : 익산어양중 → 전주평화중
황희경 : 익산부송중 → 전주양지중
박종구 : 남원산내중 교사 → 남원산내중 교장
이원형 : 완주교육청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김혜정 : 무주설천고 → 익산부송중

- * 박종구(남원산내중)선생님께서 공모제 교장으로 선출되어 산내중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알찬 농촌학교로 키워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 정우식 부원장님의 인터뷰기사가 전북일보(9.22자) '사람과 사람'란에 보도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20여년간 땀흘린 교육운동 내용이 잘 소개되었습니다.
- * 최봉석 선생님은 최근 개관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본원 독서교육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에도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 * 강윤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일하시는 익산교육시민연대에서 익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 이동욱(고산고)선생님께서 지난 7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이원형선생님께서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서정인(우석대)교수님께서 6개월간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지난 8월 귀국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교육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 소성섭 회원님께서 9988방문간호요양센터를 개소했습니다.(이용문의는 T.236-9988)
- * 윤장근(김제용동초)선생님이 10월 10일 결혼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큰 복을 기원합니다.
- * 고윤경(봉서초)선생님이 지난 10월18일 백년가약을 맺으셨습니다. 축복 속에 이룬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 소식지에 생태만화 '말캉이'를 실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화가이자 생태교육연구가인 황경택작가의 새책 [생태탐정 완두, 우리동네 범인을 찾아라/길벗스쿨](사진)이 출간되었습니다. 만화로 생태와 가까워지는 재미와 흥미,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 좋은 반응을 얻기 바랍니다.
황경택 작가의 새 책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부족 및 기타사유로 출금이 안된 경우 다음 월에 합산하여 출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북녘 어린이 공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공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공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공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공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공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blue21.or.kr)의 [통일마당-중등]의 13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원서

회 원 (), 후원회원 ()

1. 개인 정보

이 름	(남 , 여)	생년월일	
학 교 명		담당교과	
학교주소		학교전화	
손 전 화		집 전 화	
E - mail			
자택주소			

2. C M 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 금 주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	
CMS자동이체	동의함 : () / 동의 안 함 : ()	월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만원

3. 관심 분야 (2개 √표)

()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인권 · 복지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독서 · 논술교육	() 초등교육	() 통일 · 역사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생명 · 환경	() 학급운영 · 학교경영
() 진로 · 상담	() 양성평등 · 성교육	() 학부모 교육
() 인터넷 · 정보	() 학교운영위원회	() 기타

※ 홈페이지에(www.blue21.or.kr)서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blue21.or.kr>

가입문의 : ☎ 063-905-0218 fax, 063-227-0650



우한기 초청 강연 성황리에 마쳐
『어린 왕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지난 10월 20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지난 10월 20일 저녁, 60여분이 문화원 교육실을 가득 메워 주신 가운데 우한기씨의 어린왕자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는 회원들의 세상보기의 창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의미 있는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강연과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모색하고 생산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끓주리고 홀로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막과 같은 불시착의 공간에서 만나는 어린왕자는 나를 잃어버린 나와 의 만남이고, 미래의 나를 찾아가야 할 어린영혼들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고립의 수동적 공간에 빠진 아이들이 스스로 벗어나 홀로 의연하게 고독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성숙한 참다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를 집어삼킨 바오밥나무의 허장성세에 도취되어 추상화된 삶의 가치의 뿌리를 뽑아 던지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 삶의 진실한 구체적 가치를 찾아, 관계 맺어 가며 그리하여 길들여짐으로써 길들이는 관계들을 엮어가는 교사로서, 주체로서 바로 서야 하겠다. 잃을 수 없고 저버릴 수 없는 ‘환상’ 같은 희망을 찾아서 따로 또 같이...”

우한기 초청 강연 『어린 왕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강연에 참가한 어느 교사의 소감록에서

